

한국 축구, 월드컵 가는 길 산뜻한 첫발

한국 축구가 2026년 북중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순항의 뜻을 올렸다.

한국은 16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싱가포르를 5-0으로 꺾었다. 한국 대표팀은 최근 A매치 3경기에서 모두 15골을 터트리며 한 점도 내주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모두 4골 차 이상의 완승을 거뒀다.

싱가포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낮은 20개 나라가 참가한 아시아지역 1차 예선을 거쳤고 한국은 2차 예선부터 참가했다. 한국은 FIFA 랭킹 24위, 싱가포르는 155위다.



▲ 싱가포르를 상대로 다섯 번째 골을 넣은 이강인(왼쪽)을 손흥민이 축하해 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한국 대표팀의 5골은 모두 유럽파가 넣었다. 선제골은 전반 44분 덴마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조규성(미트윌란)의 발끝에서 터졌다. 후반 4분엔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조규성이 헤더로 골문을 뚫었다.

세 번째 골은 후반 18분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네 번째 득점은 후반 23분 황의조(노리치시티)가 페널티킥으로, 마지막 골은 후반 40분 이강인이 넣었다.

한국은 21일 중국과 2차 예선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중국 선전에서 치르는 방문경기다. 36개국이 네 팀씩 9개 조로 나눠 경쟁하는 2차 예선은 내년 6월까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조 1, 2위가 3차 예선에 진출한다.

역살 잡고 헤드록 걸고 ... NBA 경기 중 난투극

미국프로농구(NBA)에 한 골도 넣기 전에 난투극이 벌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체이스 센터에서 전날 열린 2023-2024 NBA 정규리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 1쿼터 도중 두 팀 선수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상황은 이랬다. 미네소타 공격 상황에서 코너에 있던 탐슨과 미네소타 제이든 맥대니얼스가 서로를 붙잡으며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탐슨이 먼저 맥대니얼스의 목살을 잡았다. 맥대니얼스도 지지 않고 탐슨의 팔을 잡아당기며 두 선수의 신경전은 더욱 붙이 붙었다. 분위기는 더욱 거칠어졌다.



▲ 경기 도중 난투극을 벌이는 미네소타와 골든스테이트 선수들. 뒤로 고베르 뒤에서 그린리 헤드록을 걸고 있다(왼쪽). 사진=AP연합뉴스

두 선수의 충돌은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그린리 상대 빅맨 루디고 베르에게 헤드록을 걸었다. 결국 난투극의 원인이 된 그린리와 탐슨, 맥대니얼스는 퇴장 당했다.

그린리의 경우 지난 12일에 열린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경기에서도 퇴장당한 바 있어 이번이 시즌 두 번째 퇴장이 됐다.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최근 25년 사이에 두 팀이 한 점도 넣기 전에 2명 이상이 퇴장당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그린리는 12일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경기에서 이어 이번 시즌 벌써 두 번째 퇴장을 당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미네소타가 104-101로 이겼다.

조코비치, 사상 최초 '통산 400주' 정상



▲ 2023 ATP 파이널스대회 홈계르 루네와의 단식 경기 중 노바크 조코비치가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노바크 조코비치(36·세르비아)가 올 시즌 남자프로테니스(ATP) 연말 세계 랭킹 1위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남녀 프로 테니스를 통틀어 사상 처음으로 통산 400주 동안 세계 최정상 자리를 지키는 기록까지 세웠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전날 열린 2023 ATP 파이널스대회 단식 조별리그 그린(green) 그룹 1차전에서 홈계르 루네(20·덴마크·10위)를 2-1(7-6, 6-7, 6-3)로 물리쳤다. ATP 파이널스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로 단식에는 그해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8명만 참가한다.

이날까지 총 399주 동안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린 조코비치는 이 승리로 이번 대회 최종 성적과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최소 405주간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 부문 역대 2위는 로저 페더러(42·스위스)가 남긴 310주다.

2003년 ATP 무대에 데뷔한 조코비치가 연말 랭킹 1위를 차지한 건 2011, 2012, 2014, 2015, 2018, 2020, 2021년에 이어 올해가 8번째다. 조코비치는 올해 말 랭킹 1위에 오르면서 2년 전 자신이 세웠던 이 부문 역대 최고령 기록도 새로 썼다.

조코비치는 올해 52승 5패(승률 91.2%)를 기록했다. 개인 통산 승률(83.8%)을 뛰어넘는 성적이다.

1499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

5	6			9		2	3
	9			1	4		
		6	2				5
3						1	
	1	5	3				2
				4			
6	5		7			2	4
		3				7	8
4		7		1	5		

날말퍼즐 정답

				1 소	2 일	거	리
	3 초	상	4 화		당		
5 흥	보		6 제	7 자	백	8 가	
일				태		9 요	10 약
11 점	12 심		13 필				흔
	14 보	15 금	자	16 리		17 시	식
		배		18 본	고	장	
19 새	옹	지	마				